

비교문화심리학, 문화심리학

**CROSS-CULTURAL PSYCHOLOGY &
CULTURAL PSYCHOLOGY**

문화 개념의 유래 및 사전적 정의

- 경작(耕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
-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는 한 사회의 행위 및 생활양식, 예술, 가치 및 신념 체계, 제도 등을 가리킴

각국의 LG 냉장고 광고 비교

내용	외국	한국
출연자 수	가족 중심	한 명 또는 두 명
주제	실용	이미지
출연자	일반인	유명 연예인
기능 설명	실제 시연	화면으로 설명
기능 수	여러 가지 기능 설명(종합세트)	하나의 기능에 초점(유산균)
활동성	활동적(파티)	정적(연예인 혼자 서있는 경우)
설명 방식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명	한 명 또는 두 명이 독백 비슷하게 설명
냉장고 위치	실제 사용하는 장소, 실용	쉽게 접할 수 없는 럭셔리한 장소. 이미지 강조
위치 중요성	표준화된 공간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강조되지 않음	설치된 수납공간과의 매치 중요시

각국의 LG 냉장고 광고 비교

내용	외국	한국
엔딩 화면	종료할 때 LG 로고 강조	
출연자 특성	어린이 출연	성인. 주부 중시
모델 포즈	다양한 포즈, 장면	매너리즘. 특정한 모델의 포즈
모델 의상	캐주얼, 일상복	의상이 화려하고 정장
음악	활기찬 배경음악	정제되고 고급스런 분위기

노트: EKU에 강의자료실에 등록된 LG 냉장고 광고 동영상 시청

문화의 개념 정의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의 정의: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를 ‘지식 · 신앙 · 예술 · 도덕 · 법률 ·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함

유네스코(UNESCO)의 정의: 사회 또는 사회집단의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으로서 예술, 문학,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함

표층문화

겉으로 드러나고 가변적인 공동체의
언어 · 예술 · 문학, 생활양식, 제도

심층문화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되고 쉽게 변하지
않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의 다양한 감정, 관습, 가치, 신념

문화에 대한 심리학의 접근

비교문화심리학

-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
- 객관적 지식의 발견
- 중심처리기제 발견추구
—보편성 추구
- 서구심리학의 이론, 개념을 적용
- Etic 접근

문화심리학

- 사회구성론적 인식론
- 문화구속성 locality
- 문화권의 이론에 관심
- Emic + Etic 접근
- 현재의 심리학은 서구문화의 심리학
- 토착심리학 v. 문화심리학

홉스테드의 집단주의/개인주의

- 홉스테드(Hofstede)는 1967년과 1973년 사이에 40개국에서 일하는 다국적 기업인 IBM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들이 4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고 주장: 권위성, 불확실성의 회피, 개인-집단주의, 남성-여성성
- 개인주의: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 개인의 목표, 성취, 만족, 기호, 판단이 가치 판단의 기준, 개인들이 규범을 만들고 규범은 수정 가능함
- 집단주의: 개인보다 일차집단(가족, 친척, 공동체 등)이 우선, 집단이 개인의 욕구 충족과 보상의 원천, 집단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
- 비판: 문화를 이분법적인 구도로 단순화, 동일 문화권 내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차를 설명하기 어려움, 문화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움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4가지 문화적 정향성(cultural orientation)

- ① 수평적 정향성(Horizontal orientation): 평등
- ② 수직적 정향성(Vertical orientation): 위계
- ③ 개인주의: 독립적 자기, 교환관계, 태도, 개인적 목표 강조
- ④ 집단주의: 상회의존적 자기, 공동체적 관계, 규범, 집단 목표 강조

4가지 유형

- 수평적 개인주의(HI): 개인이 특별한 대우를 원치 않으면서 구별되고 싶어함 (독립적, 동일)
- 수평적 집단주의(HC): 개인이 쉽게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상호의존성을 강조함 (상호의존적, 동일)
- 수직적 개인주의(VI): 개인이 특별한 대우를 원하면서 구별되고 싶어함 (독립적, 다름)
- 수직적 집단주의(VC): 개인이 다른 집단과의 경쟁과 동시에 내집단 성원과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함 (상호의존적, 다름)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GEOGRAPHY OF THOUGHT)

- 세계관: 서양의 직선적 사고와 동양의 순환적 사고
- 인간관: 서양의 주체적 자기와 동양의 관계적 자기
 - 서양의 전체와 구별된 독립적 자기와 동양의 전체의 일부로서의 자기
- 과학관: 서양의 진리 그 자체의 탐구, 동양의 실용성 중시
 - 서양의 '본질'(essence)의 추구 -> 추상성 ('-ness') -> 순수이성과 과학의 발전
 - 동양의 조화 강조, 추상적 추론 거부 -> 규범의 발전
- 가치관: 서양의 행복의 추구, 동양의 조화의 추구
- 생태경제학적, 정치적 환경의 차이:
 - 그리스의 도시국가, 해외무역 발달
 - 중국의 전제 왕권, 농업 발달

WONG GUNGWU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ang Gungwu

- Born on 9 October 1930
- An academic who has studied and written about the Chinese diaspora
- Born in Indonesia, grew up in Malaysia, and received a Ph.D. from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Taught at the University of Malay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Became the University Professor by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EYNOTE SPEECH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HONG KONG SOCIOLOGICAL ASSOCIATION: CHINA IN HE WORLD, THE WORLD IN CHINA



MAIN IDEAS OF WANG GUNGWU

- **Peripheral powers of China became incorporated into Chinese civilization enriching Chinese culture.**
- **Importance of mapping as a strategy of nation-building and rewriting of national history.**
- **Chinese concept of history (史) as social science and lessons from the past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 or governance of the dynasty.**
- **Chinese concept of history is more focused on its practicality rather than facts and objectivity.**

문화심리학 설명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cM1qfhyocKw>

문화와 심리

	구미	동아시아
사물 지각	요소, 대상 위주(탈맥락적) 장독립적	총체적(맥락적) 장의존적
사고 (cognition)	추상적 논리성, 모순배척 => 과학, 철학	구체적, 모순상존 실용성 => 기술
자아	개성, 수월성추구 일관성, 안정성 주체성(Agency)	관계성, 화합추구 융통성, 적응성 역할, 직분
삶의 지향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적 행복추구 (자기 고양)	소임을 다하며 남부끄럽지 않은 친화적 삶 (자기 개선)

문화심리학의 정의

- 문화와 마음(mind)은 떼어놓을 수 없어서 하나의 문화에 기초한 심리학적 이론은 다른 문화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Richard Shweder:** 문화심리학은 문화전통과 사회적 관습들이 인간 심리를 통제하고, 표현하고, 변환시키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문화심리학의 발전

- 1960~70년대에 시작해서 1980~90년대에 발전
- 주요 연구자: Shweder and Levine (1984), Triandis (1989), Bruner (1990), Shweder (1991), Markus and Kitayama (1991), Cole (1996), Nisbett & Cohen (1996), Shore (1996), Fiske, et al. (1998), Nisbett, et al. (2001) and Nisbett (2003)

비교문화심리학과의 차이점

- 비교문화심리학은 문화를 심리학적 이론의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를 사용함.
- 특정 지역의 문화가 심리학적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음
- 예: 홉스테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RICHARD SCHWEDER

- W.E.I.R.D.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 W.E.I.R.D. 인구집단에 기초해서 개발된 이론들은 다른 문화에서 적용되지 않음
- 문화심리학의 목표는 서구에서의 인간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인간행위를 예측하고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을 개발하는 것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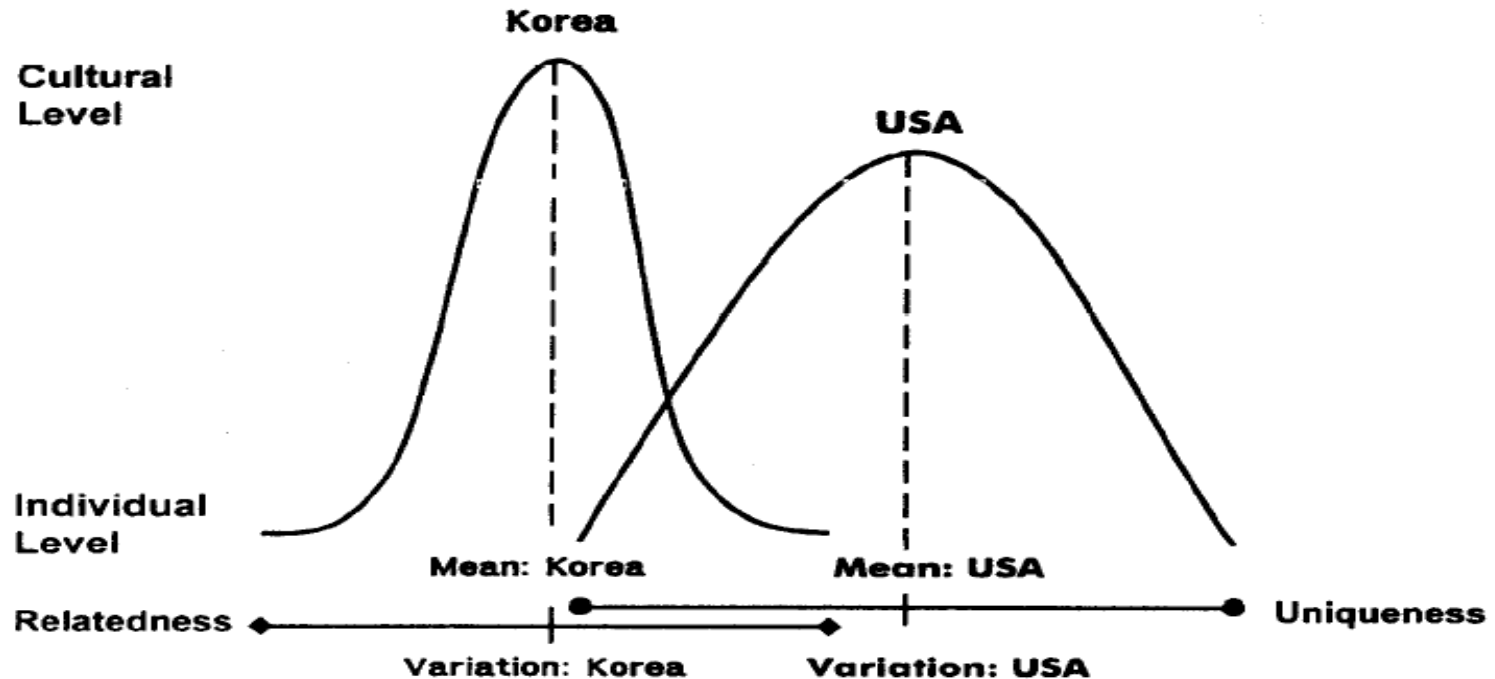


Figure 3.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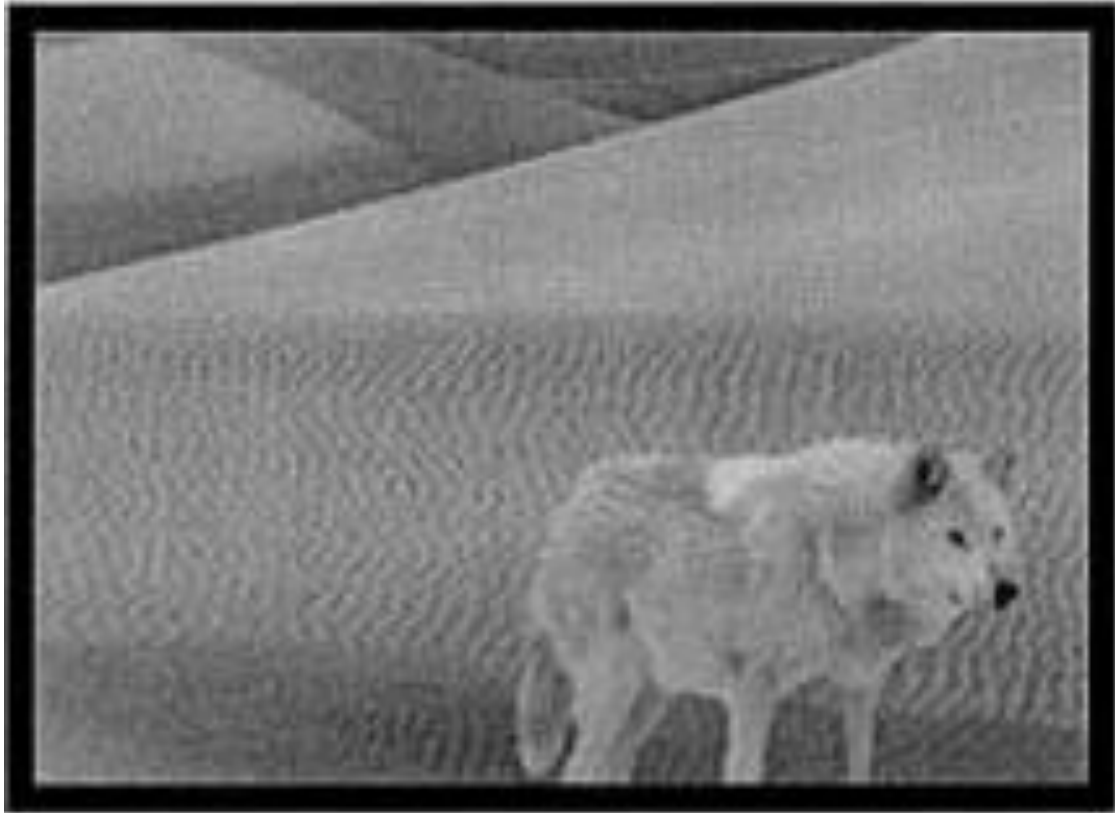
Uichol Kim, Young-Shin Park, Jaisun Koo. 2004.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177-209

EXPLAIN THE FOLLOWING PICTURE.



MASUDA & NISBETT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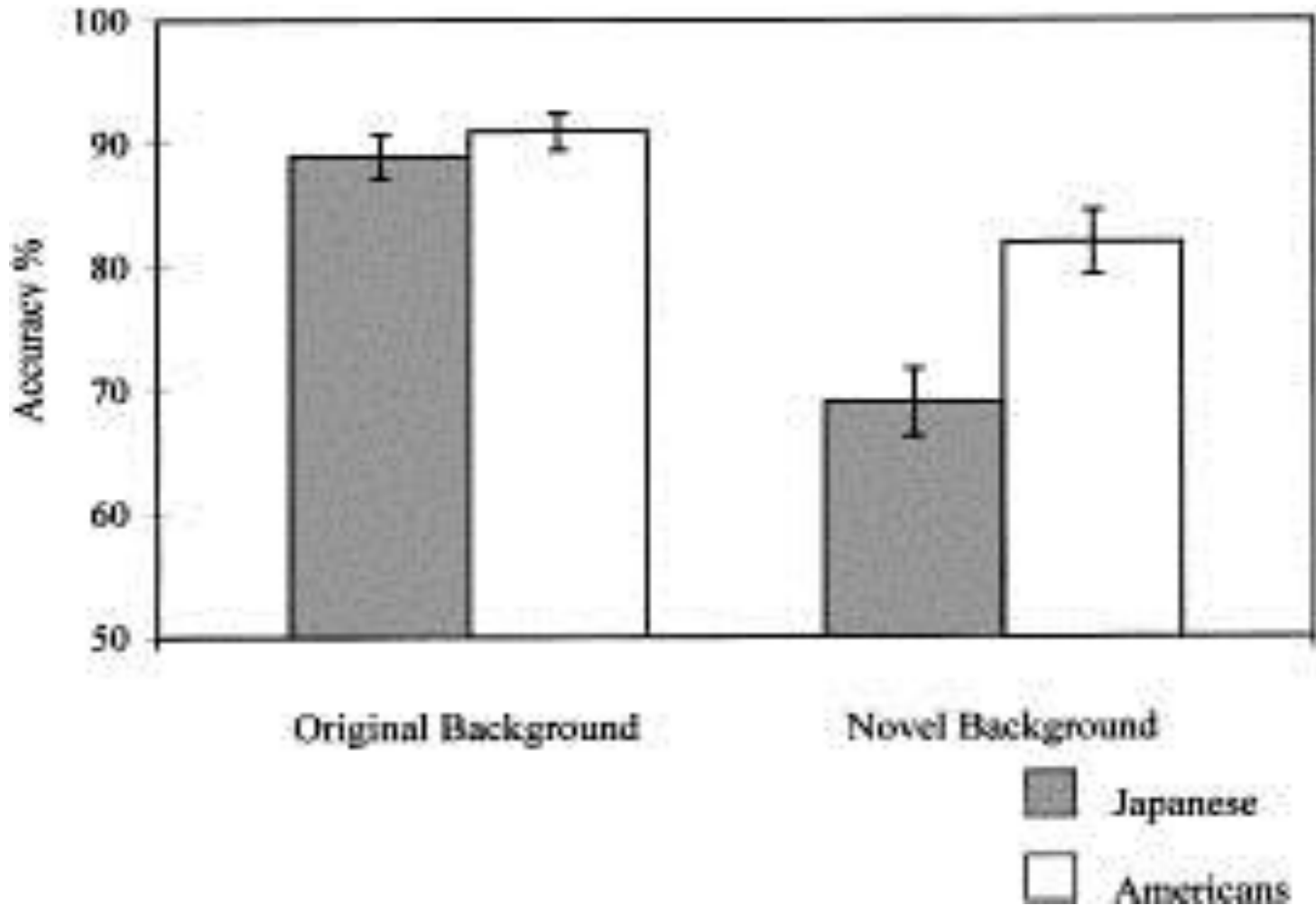






A domesticated animal with a wild

RECOGNITION ACCURACY FOR PREVIOUSLY SEEN ANIMALS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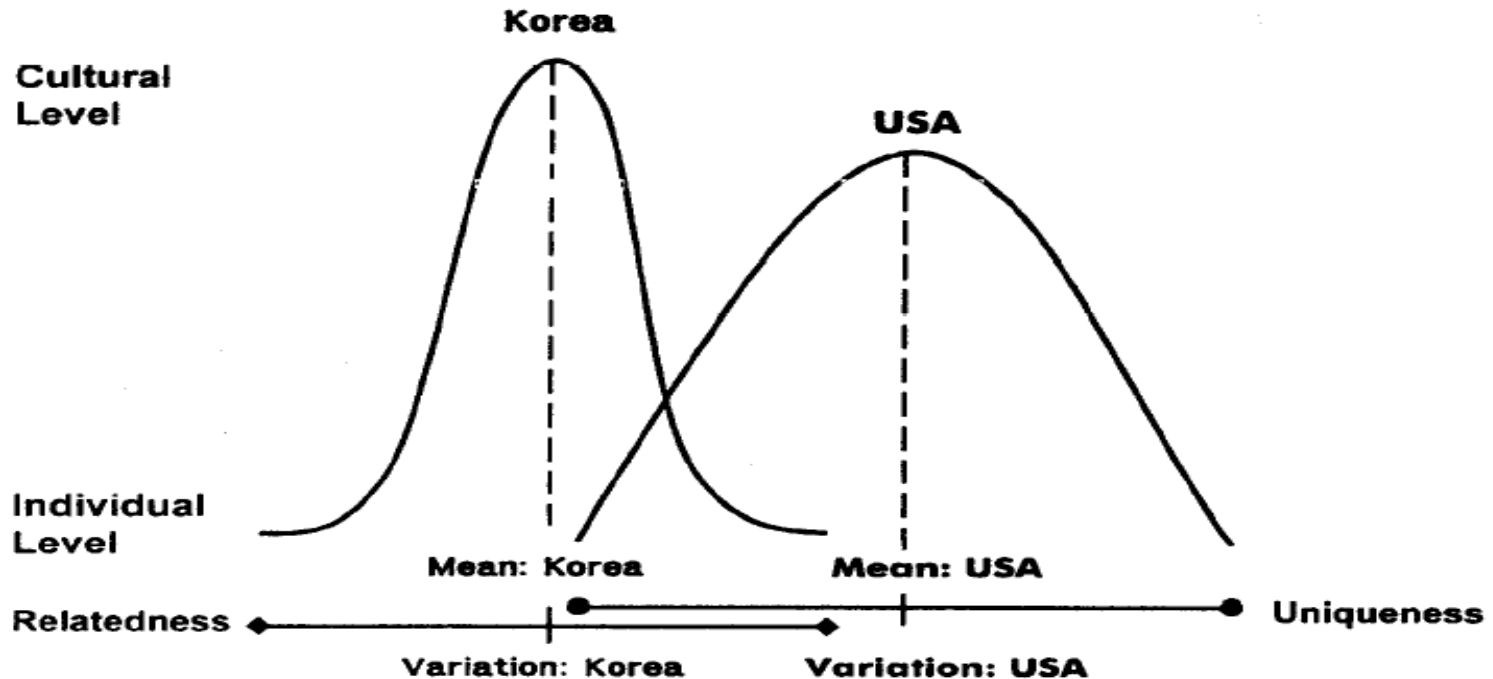


Figure 3.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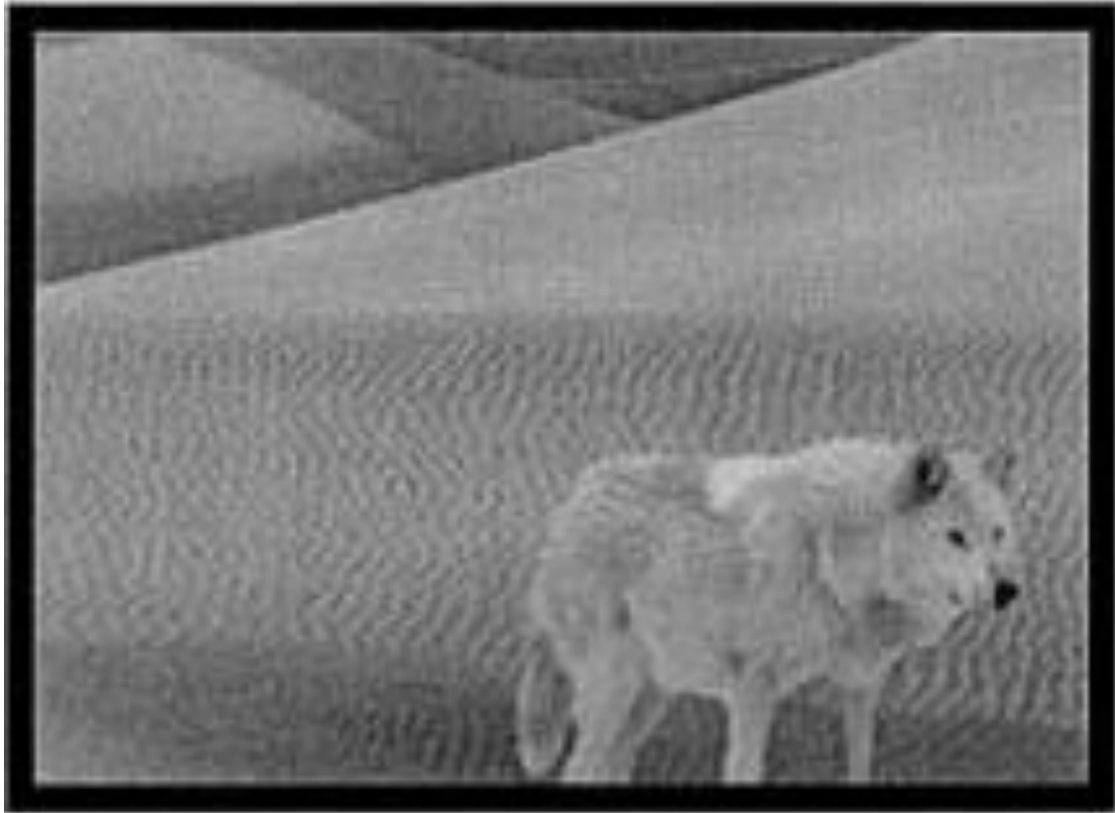
Uichol Kim, Young-Shin Park, Jaisun Koo. 2004.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177-209

EXPLAIN THE FOLLOWING PICTURE.



MASUDA & NISBETT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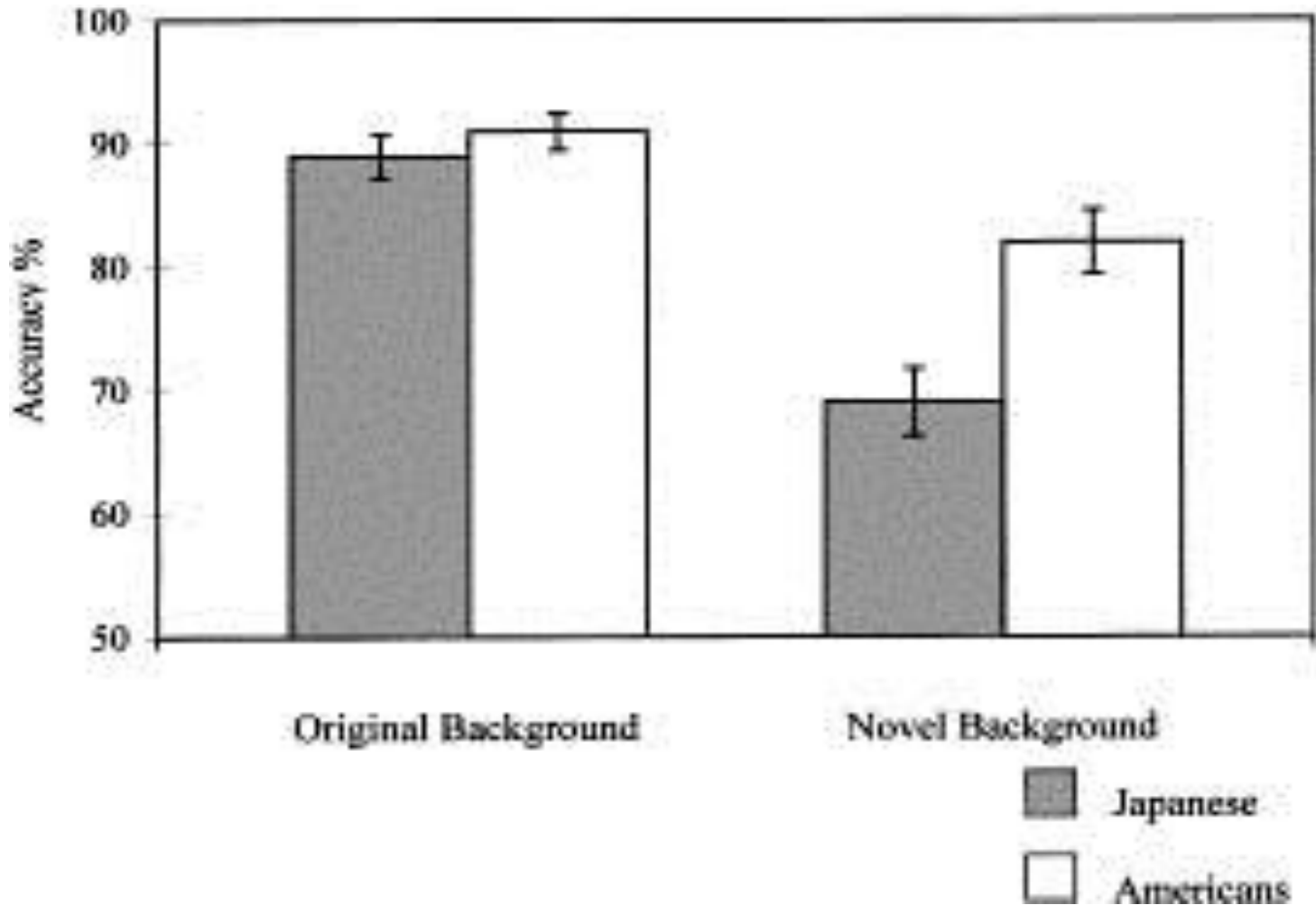






A domesticated animal with a wild

RECOGNITION ACCURACY FOR PREVIOUSLY SEEN ANIM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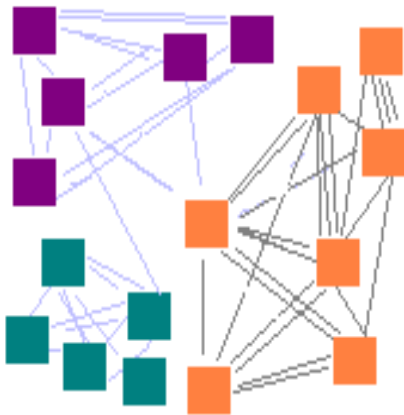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

Edward Hall: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

고맥락 사회는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서로 알고 있어서 굳이 문화적 행위의 많은 측면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사회 (**High context refers to societies or groups where people have close connections over a long period of time. Many aspects of cultural behavior are not made explicit because most members know what to do and what to think from years of interaction with each other.**)

예: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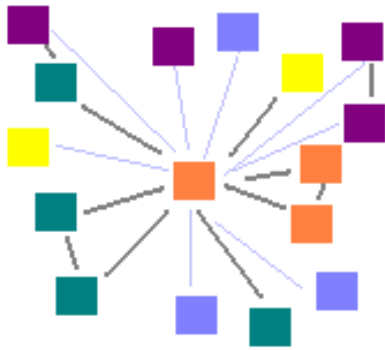
고맥락 사회



- Less verbally explicit communication, less written/formal information
- More internalized understandings of what is communicated
- Multiple cross-cutting ties and intersections with others
- Long term relationships
- Strong boundaries– who is accepted as belonging vs. who is considered an "outsider"
- Knowledge is situational, relational.
- Decisions and activities focus around personal face-to-face relationships, often around a central person who has authority.

예: Small religious congregations, a party with friends, family gatherings, expensive gourmet restaurants and neighborhood restaurants with a regular clientele, undergraduate on-campus friendships, regular pick-up games, hosting a friend in your home overnight.

저맥락 사회



- Rule oriented, people play by external rules
- More knowledge is codified, public, external, and accessible.
- Sequencing, separation--of time, of space, of activities, of relationships
- More interpersonal connections of shorter duration
- Knowledge is more often transferable
- Task-centered. Decisions and activities focus around what needs to be don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예: large US airports, a chain supermarket, a cafeteria, a convenience store, sports where rules are clearly laid out, a motel.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 구분의 유용성

- 모든 사회는 고맥락과 저맥락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회를 고맥락 사회 또는 저맥락 사회로 정의하기 어려움
- 이런 구분은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기술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함
- **While these terms are sometimes useful in describing some aspects of a culture, one can never say a culture is "high" or "low" because societies all contain both modes. "High" and "low" are therefore less relevant as a description of a whole people, and more useful to describe and understand particular situations and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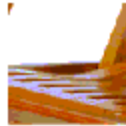
고맥락과 저맥락의 비교 방법

-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관계의 구조)
 - High: Dense, intersecting networks and long-term relationships, strong boundaries, relationship more important than task
 - Low: Loose, wide networks, shorter term, compartmentalized relationships, task more important than relationship
- Main Type of Cultural Knowledge
 - High: More knowledge is below the waterline--implicit, patterns that are not fully conscious, hard to explain even if you are a member of that culture
 - Low: More knowledge is above the waterline--explicit, consciously organized

고맥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 고맥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저맥락 문화에 사는 사람들보다 맥락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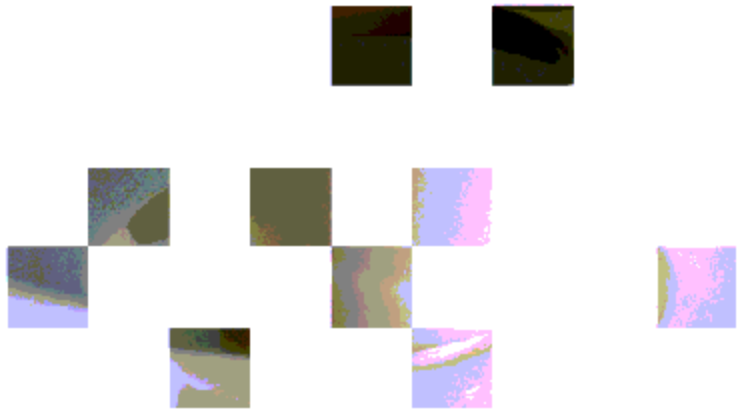
TASK A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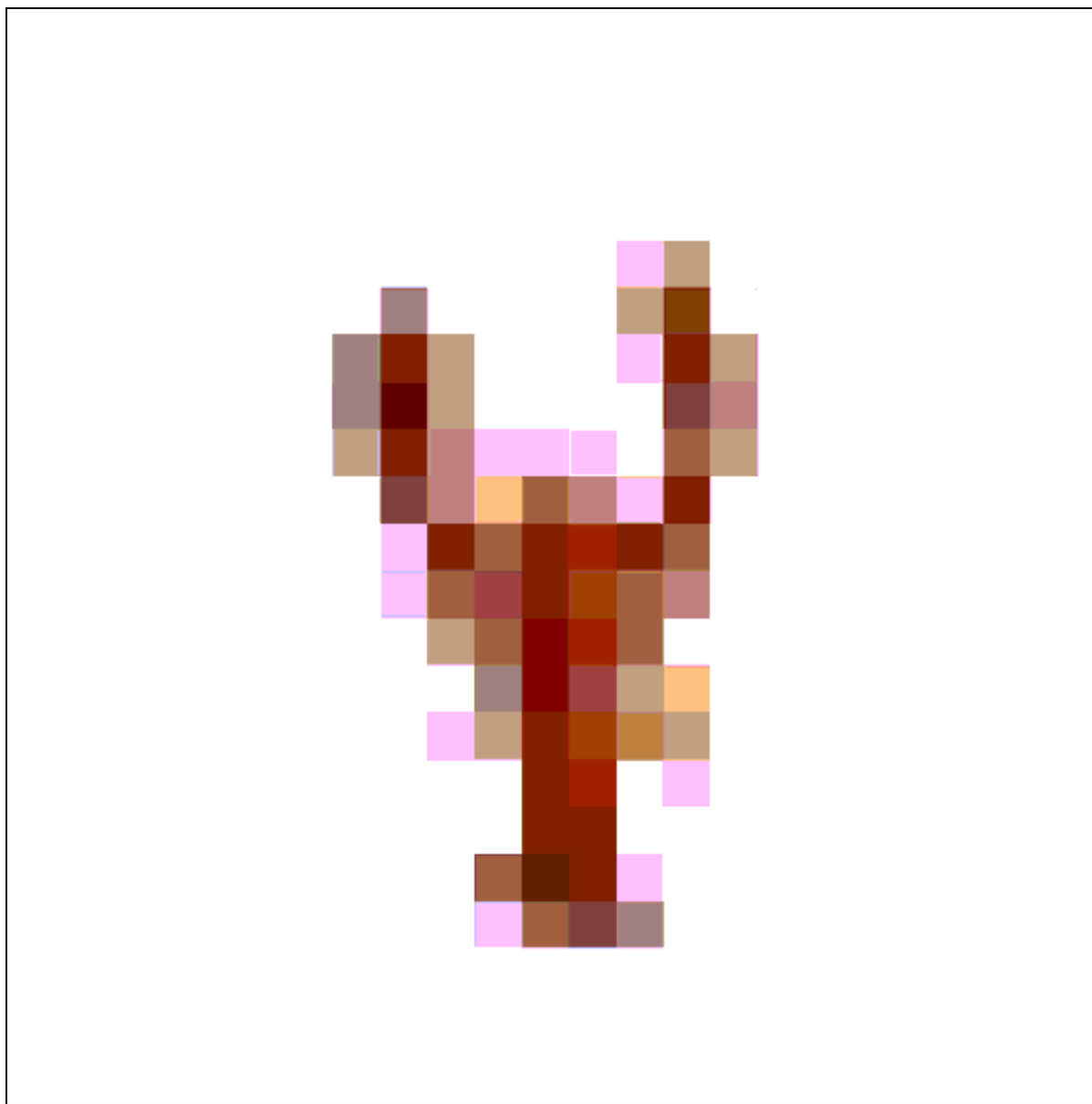
TASK B



ANSWER



TASK C



ANSWER



CONDITIONS

Task A

One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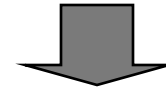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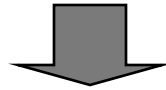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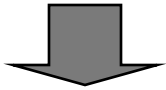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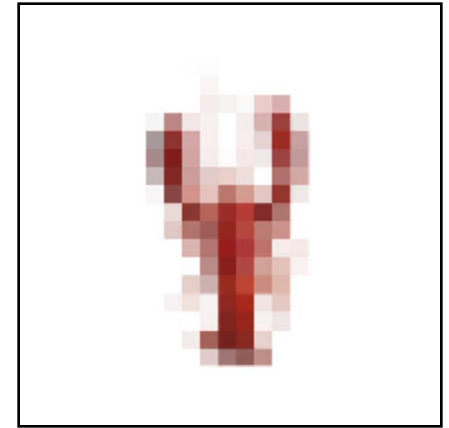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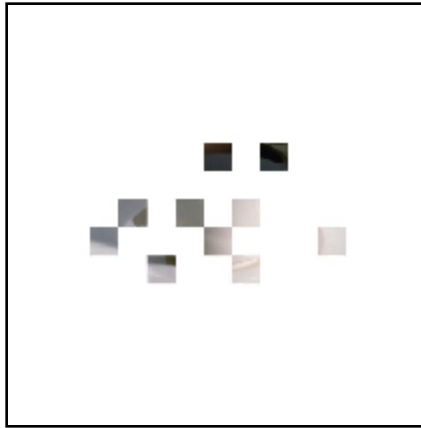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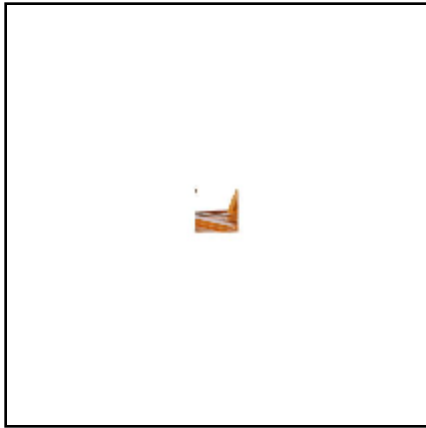
Task B

Several Parts.

Task C

The whole, out of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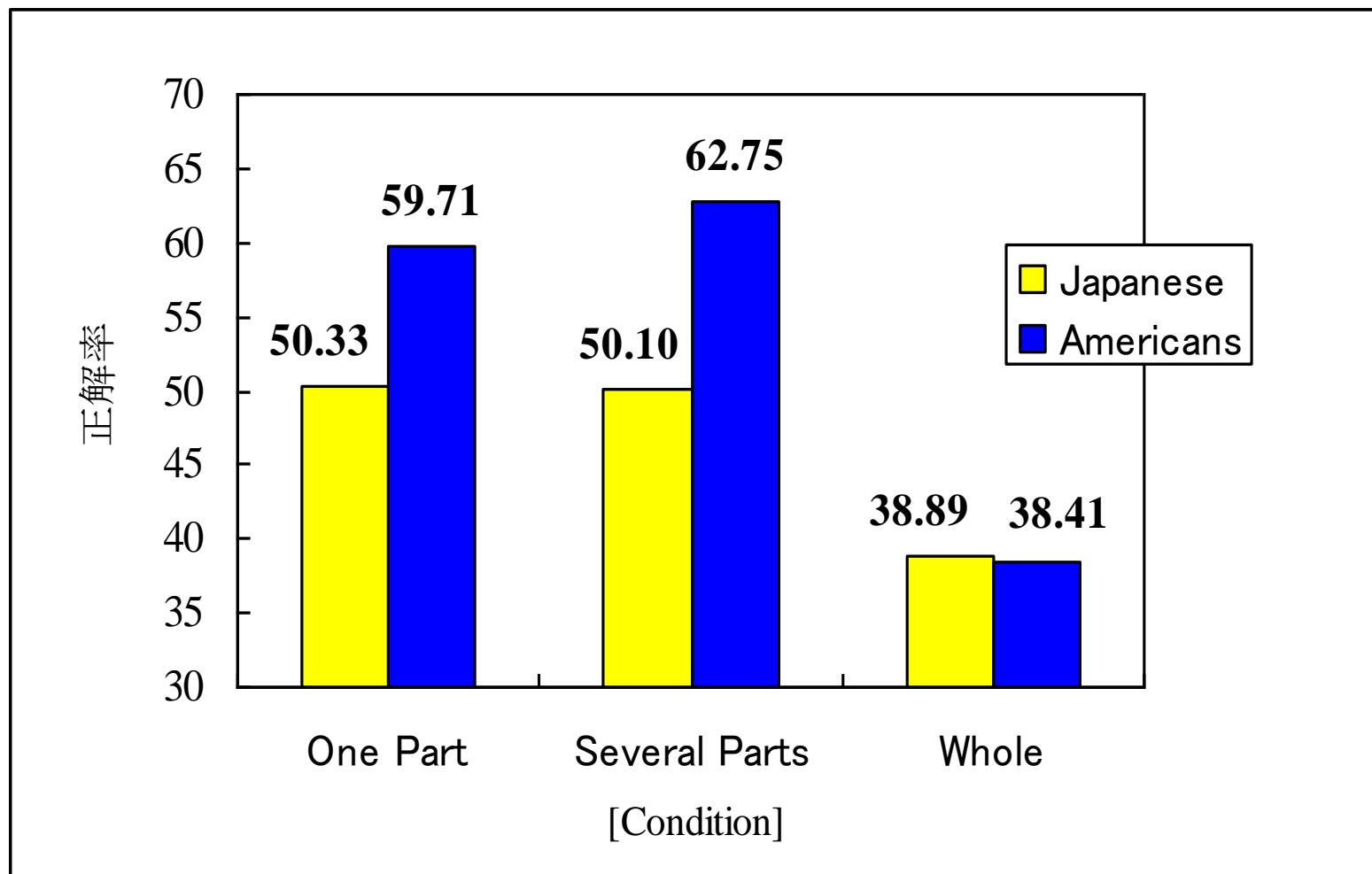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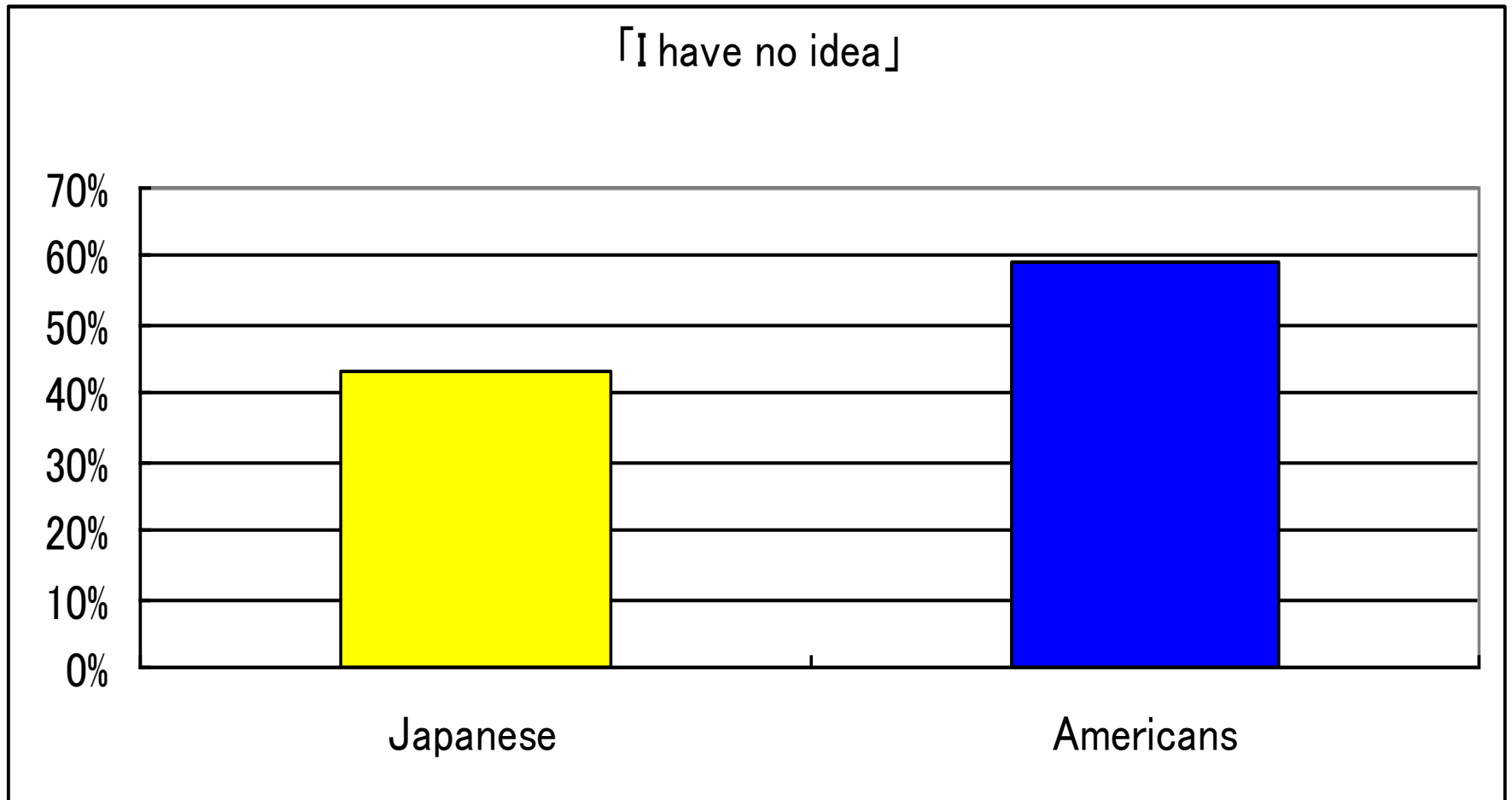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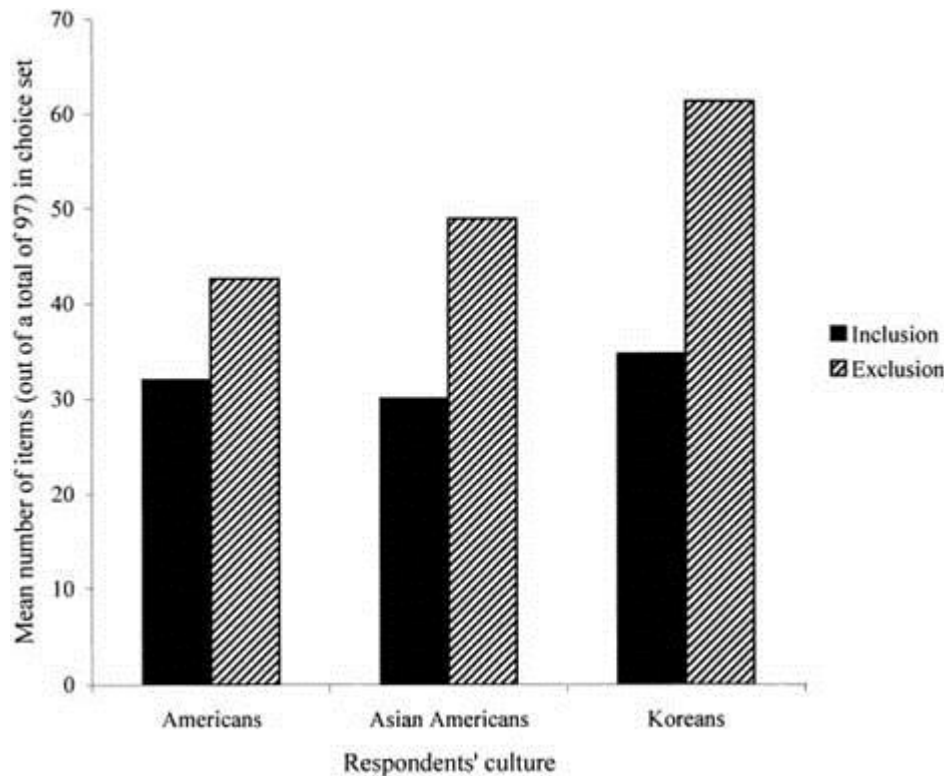
PROPORTION OF RIGHT ANSWERS (JAPANESE AND AMERICANS)



PROPORTION SAYING "I HAVE NO IDEA" IN TASK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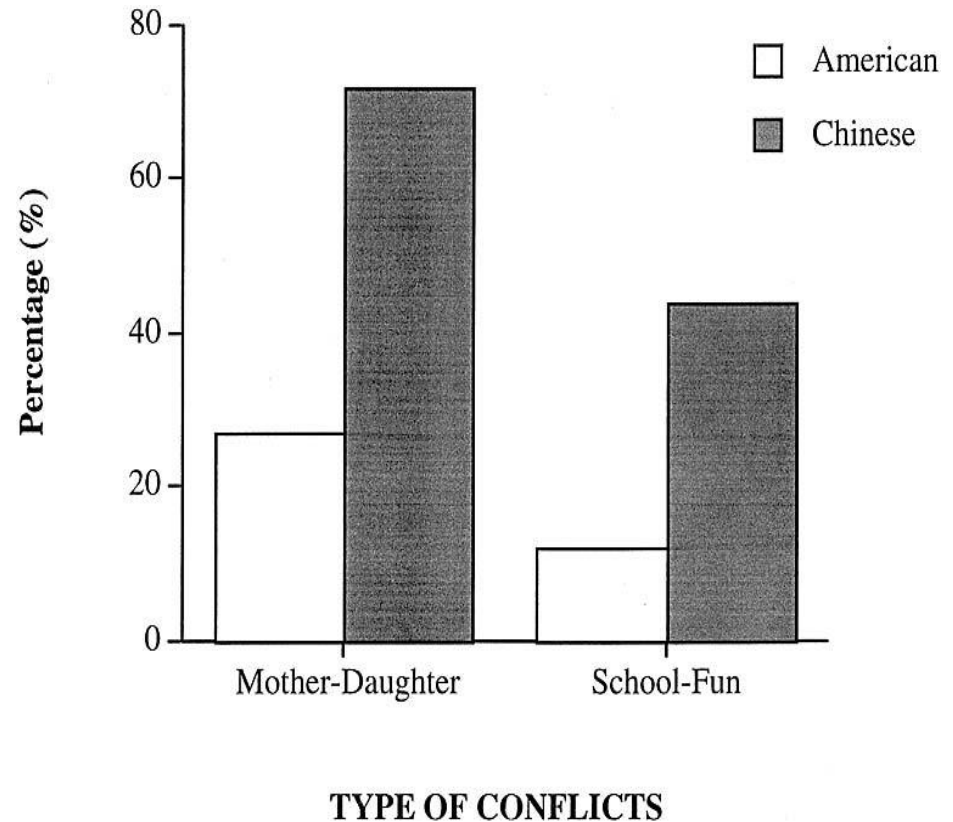
살인사건에 관련된 97개 사항 중에서 무관한 것들을 배제시키는 작업에서 문화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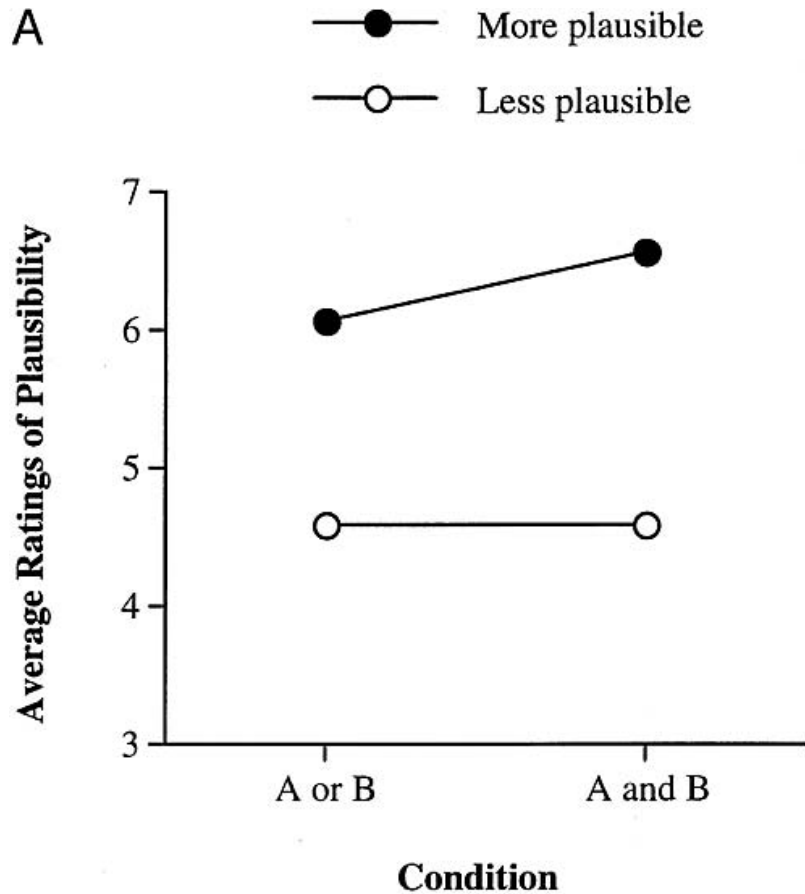
출처: Choi, Incheol; Dalal, Reeshad; Kim-Prieto, Chu; Park, Hyekyung. “Culture and judge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4(1), Jan 2003, 46–59.

대인관계(모녀의 엇갈린 바램)갈등과 내부의 갈등(공부할까 놀까) 상황에서 제시된 절충적 해결방안에 대한 선호도에서 나타난 문화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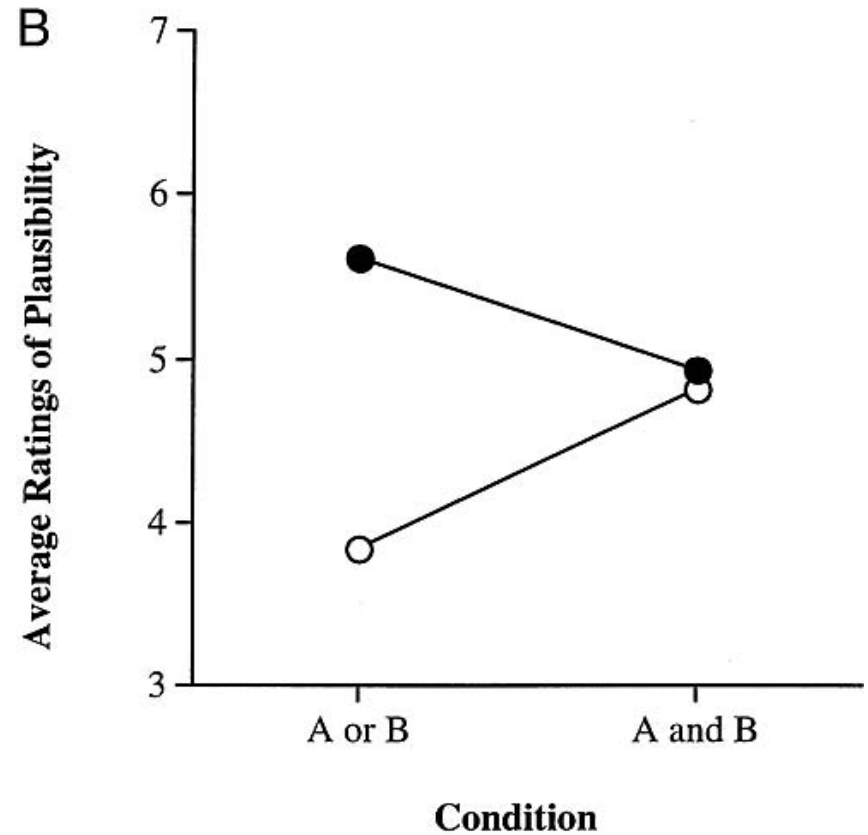
Peng & Nisbett 99



두 개의 상호모순된 명제에 대한 독립적 판단과 동시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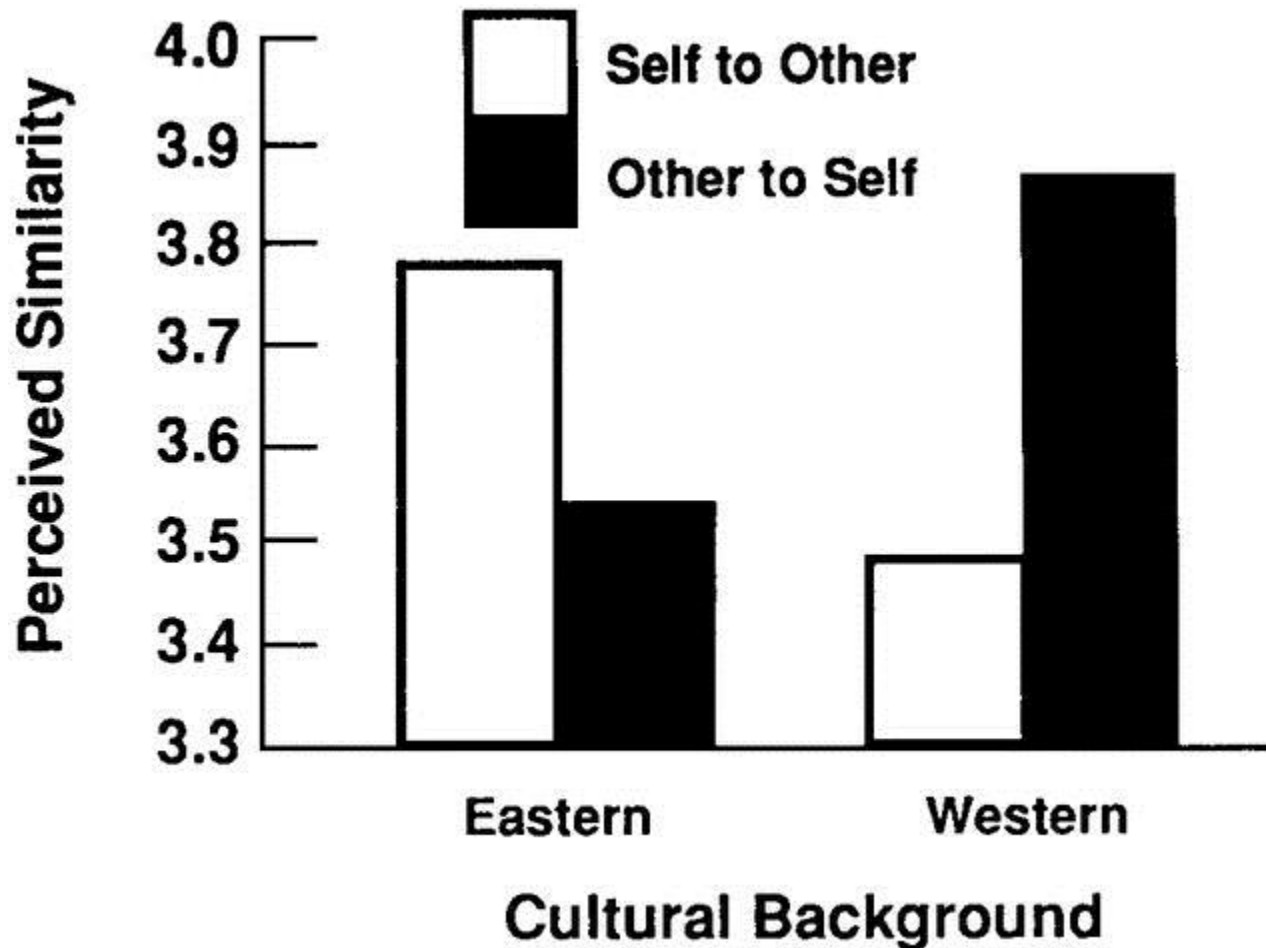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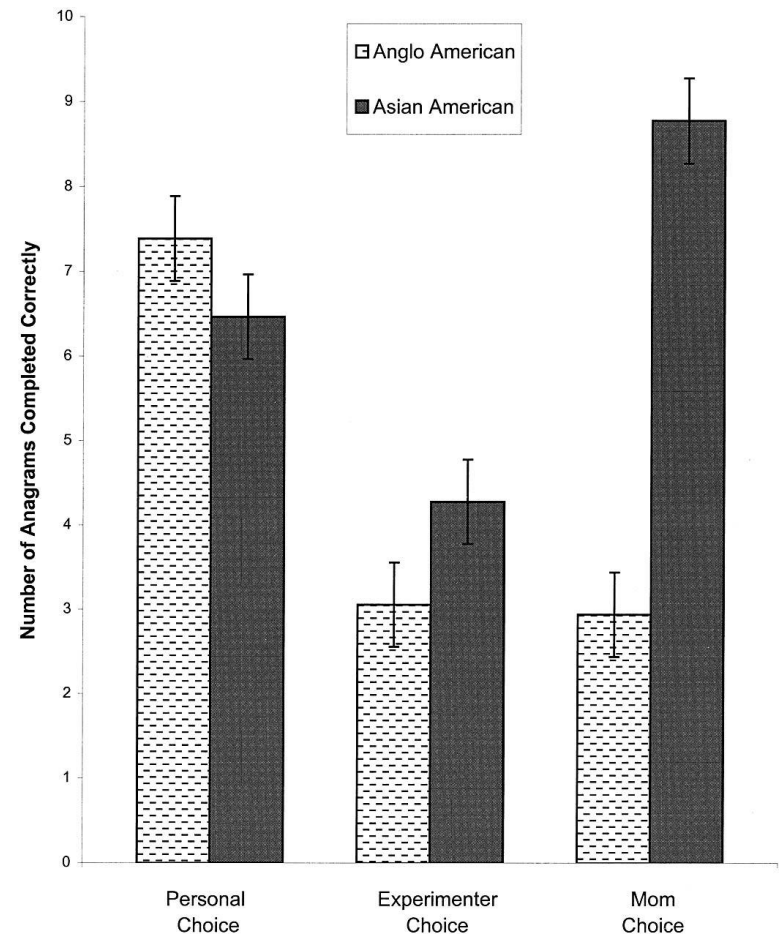
중국

나와 남이 비슷한 정도 (MARKUS & KITAYAMA, 1991)



내집단의 문화: IVENGAR & LEPPER, 1999

내발적 동기(과제에 매달리는 시간)의 차이: 자신이 선택한 과제, 실험자의 선택, 엄마의 선택



자기개념의 융통성 연구 1

피험자: 서울대 심리학 개론 수강생 68명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 개론 수강생 51명

절차: 피험자내 설계

“귀하는 얼마나 내성적입니까?” – 11점 척도
(-5: 아주 외향적, 5: 아주 내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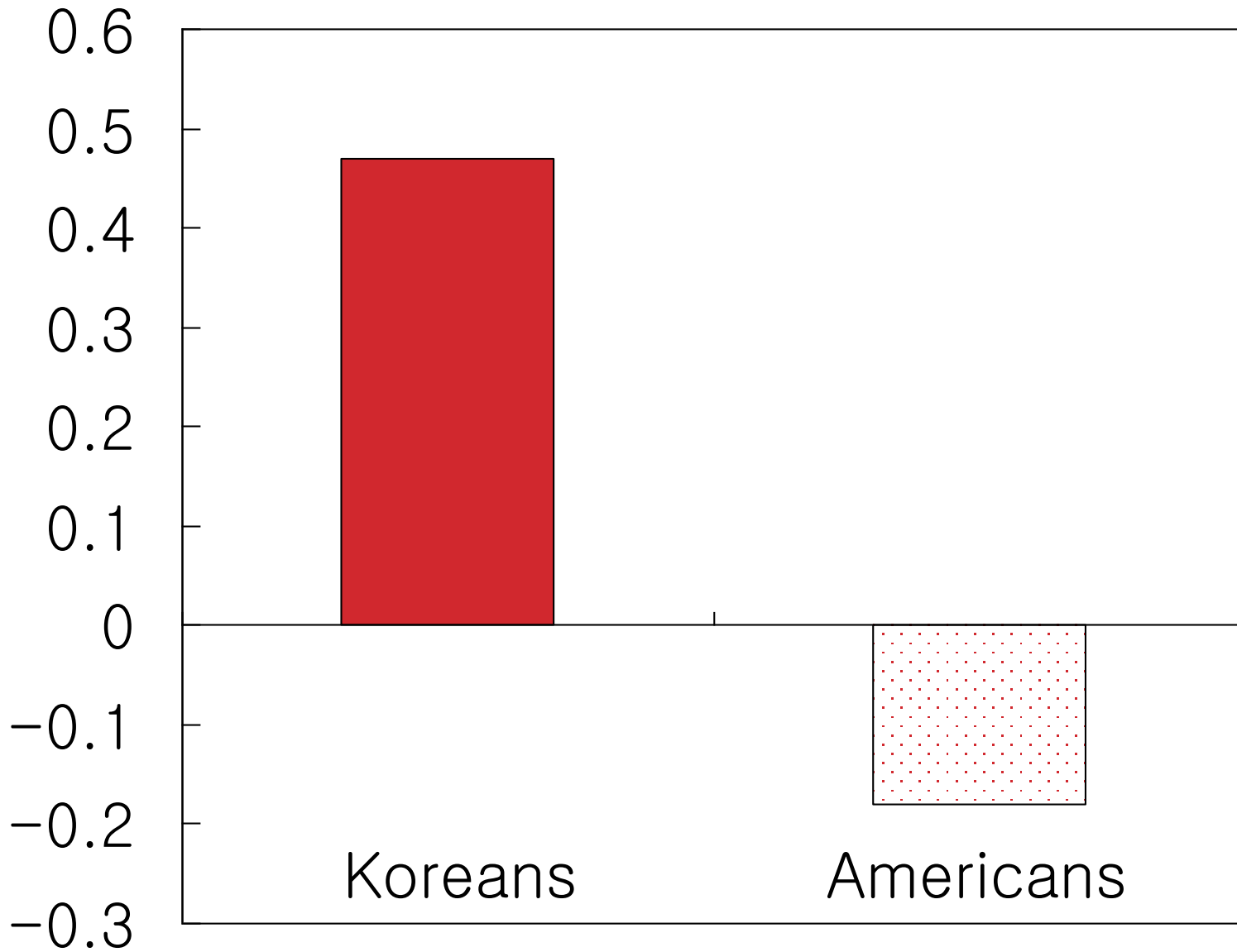
23개의 끼워넣기 질문들 (filler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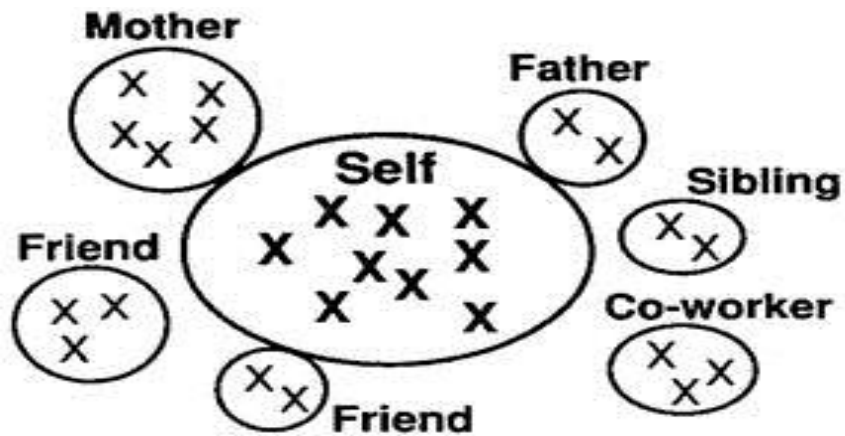
“귀하는 얼마나 외향적입니까?” – 11점 척도
(-5: 아주 외향적, 5: 아주 내성적)

분석: “내성적” 질문 – “외향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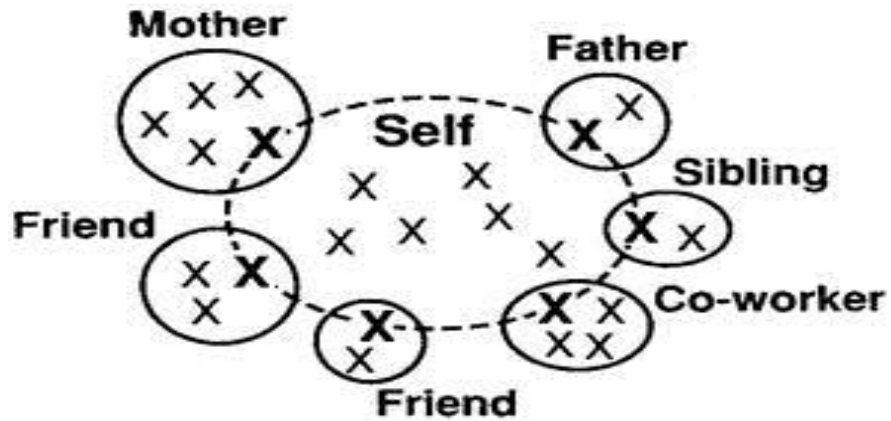
결과:

내향성 - 외향성
양행성 - 양행성





A. Independent View of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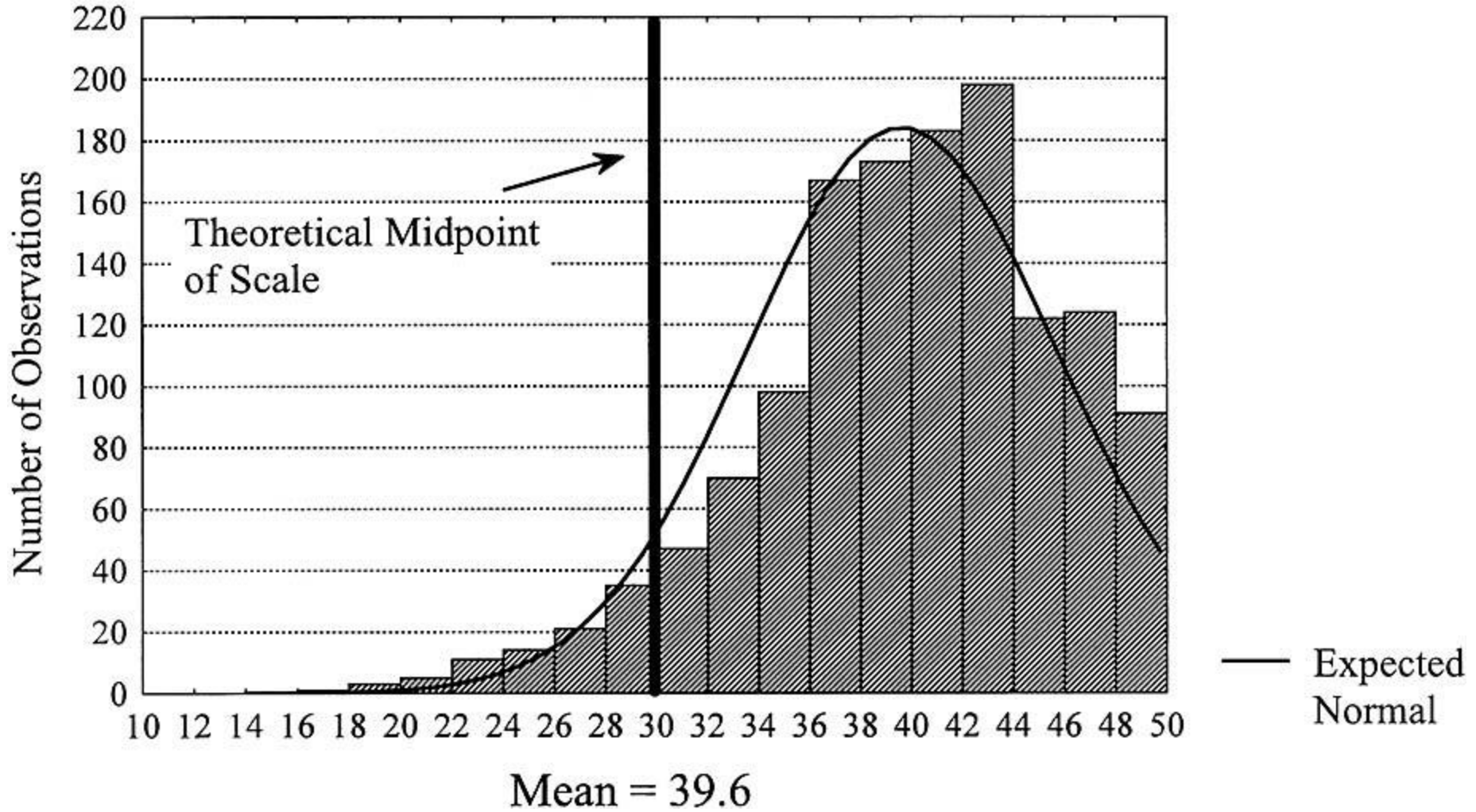
B. Interdependent View of Self

자긍심에 대한 보편적 욕구는 존재하나?

-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기관(self-view)을 소유하고 증진하고 유지하고 싶은 것으로 가정되어 옴
- Steven Heine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긍정적인 자기관과 일치하지 않음. 일본 문화는 오히려 자기비판을 통한 자기개발을 강조함
- 긍정적 자기관은 현대 북미문화의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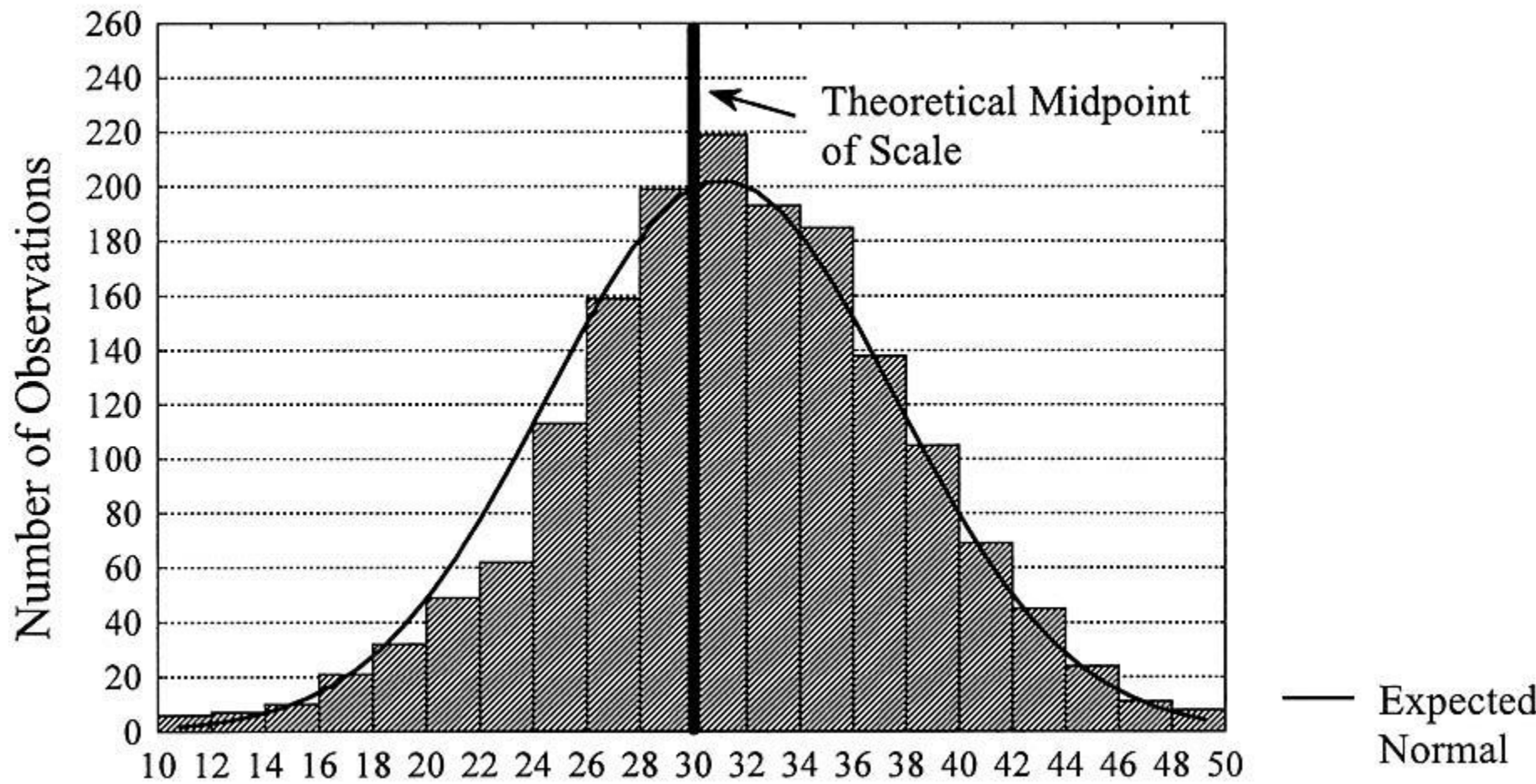
출처: Steven, Darrin Lehman, Hazel R. Markus, and Shinobu Kitayama.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European Canadian Sample (N = 1402)



자긍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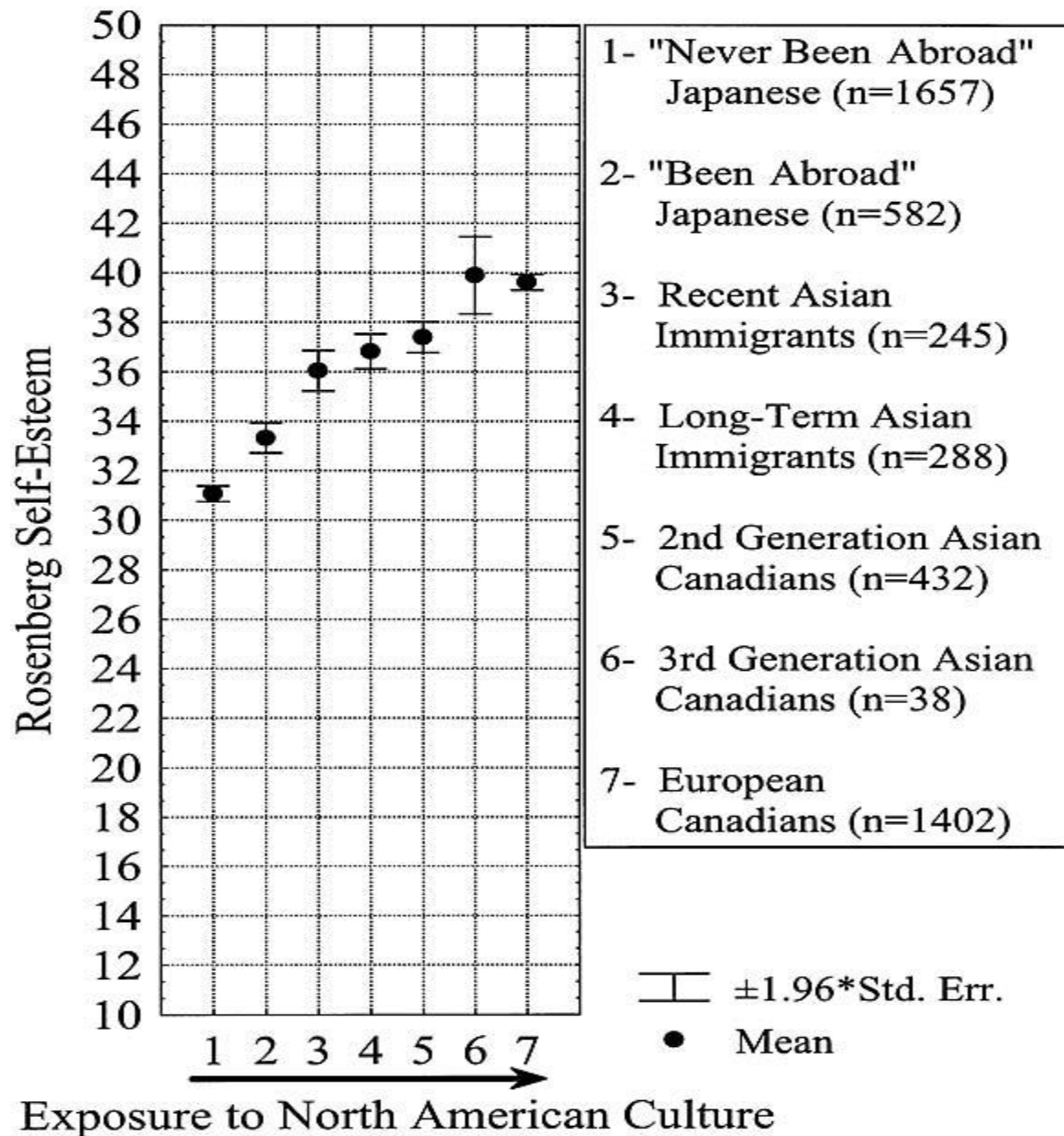
"Never Been Abroad" Japanese Sample (N = 1657)



Mean = 31.1

자긍심 분포

Self-Esteem and Exposure to North American Culture



두 문화의 자기(SELF)

준거적 물성자기-구미 Referential Entity self

- Substantive
- Ontological
- Structured
- Real
- Referential
- transcendental

추론적 마음으로서 자기- 한국 Inferential Mind self

- Static
- Dispositional
- Un-structured
- Psychological
- Configurational
- Contextual

한국인의 교류 정서: 정

- 관계적 정서로서의 정
 - 역사성
 - 동거성
 - 다정성
 - 허물없음
- 시간, 관계, 성격, 공간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중복적인 측면을 가진 보완적 관계임
- 성격 특징으로서의 정: 대인관계적 정서
- 정의 기능: 편안한 느낌, 의지, 신뢰,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한(恨)

- 최상진의 ‘한’의 정의: 자신의 불행에 대한 자책의 정념과 자신의 불행에 대한 부담함의 심리가 결합된 복합감정 상태
- 한의 조건
 -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 타인에 비해 현저히 결핍되어 고통을 당할 때
 -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했을 때

- 한의 단계
 - 욕구좌절을 겪으면서 분노, 복수심, 회한의 강한 감정
 -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전가시키면서 자기비하를 하거나 재수 또는 팔자 탓을 함
 - 시간이 경과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짐
 - 한이 자신의 감정적 관여로부터 분리되어 객관화되며, 자신의 한에 대해 남의 일처럼 평온하고 초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됨

서편제에서 한 푸는 장면

<http://www.youtube.com/watch?v=Z2lg6le-Hng>

서편제 : 1993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임권택 감독. 이청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하고 김명곤이 각색. 주연으로 김명곤,오정해,김규철이 맡음. 역대 한국영화사상 최다관객을 기록한 영화로 판소리와 한(恨)이라는 소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 영화

.

체면

- 체면의 정의: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
- 체면의 두 요소
 - 남을 대한다는 외적 요소
 - 떳떳함이라는 내적 요소
- 체면은 외적 요소와 결부된 창피성 부끄러움
- 체면의 종류
 - 지키는 체면
 - 내세우는 체면
-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자기방어기제 중의 하나가 허세

눈치

- 눈치 기제는 상호 간의 교류에서 피차 체면을 잃지 않고, 상을 찌 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의도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기술
- 사람들은 내집단의 상하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 주기 위해 눈치를 ‘주고’, 이를 눈치 ‘체는’ 행위를 함

의례성

- 최상진은 의례성이란 언행자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지닌 상태에서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속마음과는 다른 언행을 보이는 심적 상태
-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한국인의 성격: 한덕웅의 조사(성인과 대학생 853명)

주요 성격

1. 체면, 허세, 속마음을 보이지 않음, 이중성, 거짓말, 본심은폐, 표리부동
2. 정
3. 자존심과 자부심
4. 성급성
5. 한
6. 복종, 순종, 아첨, 의존, 타인의존성, 충직
7. 야망, 야심, 성취동기
8. 고집, 고지식, 완고, 독단, 독선, 위엄, 배타성, 폐쇄성, 편협성
9. 이기적
10. 형식적, 엄격성
- 11.예절, 공손
- 12.아첨
- 13.책임회피
- 14.의리, 신의
- 15.부지런함, 근면, 성실
- 16.화목, 원만, 절충
- 17.세속성
- 18.수줍음, 부끄러움, 소심
- 19.수치심, 열등감
- 20.협동
- 21.지혜, 지성, 유능성
- 22.은근함

한국인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특성

1. 성격의 성숙함: 인격적, 진실, 성실, 부지런함, 정직, 착실, 책임감, 꾸준함, 지성스러움
2. 지성과 사고력: 슬기, 총명, 지성적, 지혜, 영리함, 현명함, 자율성,分別력, 창조성
3. 타인을 배려: 인간적, 자애로움, 따뜻함, 정다움, 인자함, 착함

한국인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특성

1. 타인에게 폐해를 주는 성격: 흉악함, 잔악함, 잔인함, 포악함, 악랄함
2. 신뢰감과 호감을 떨어뜨리는 성격: 배신, 야비, 간사, 난폭, 추잡, 인간성 없음, 주접스러움, 더러움, 위선, 추악, 음흉
3. 타인을 배려: 인간적, 자애로움, 따뜻함, 정다움, 인자함, 착함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성격 (ANDERSON, 1968)

- 성실, 정직, 이해심, 충실, 진실, 신뢰, 지성, 믿음직함, 사려 깊음, 배려, 착실, 따뜻함, 친절함, 다정함, 행복함, 이기적 이 아님, 유머 있음, 책임, 유쾌, 신용 있음
- 한국인과 성실함과 호감성에서는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
- 한국인들이 인격의 성숙함을 더욱 선호하는 것과 달리 미국인들은 신뢰, 배려, 따뜻함, 친절함, 행복함, 유머 있음, 유쾌함 등 사회관계에서 경험하는 호감성을 더욱 높이 평가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성격

- 예절 없음, 무정, 적대, 야비, 이기적, 편협, 무례, 독단, 인색, 불성실, 불친절, 신뢰할 수 없음, 악독함, 비위상함, 거짓됨, 부정직, 잔인, 비열, 속임, 거짓말쟁이
- 한국인과 악독함, 잔인 등으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성격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예절 없음, 무정함, 이기적, 편협, 무례, 독단, 인색, 불친절, 거짓됨, 속임 등으로 대인관계서 호의성을 떨어뜨리는 특성을 더욱 싫어함
- 한국인들은 무절제, 게으름, 무책임 등으로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매우 나쁘게 생각

여러 문화에서 공통되는 성격특성

1. 외향성
2. 호감성
3. 성실성
4. 정서안정성
5. 지성/상상력/개방성

한국, 미국, 호주 대학생의 성격 비교

- 한국: 한덕웅 등(1996)
- 미국과 호주: Goldberg(1990), 이기범
-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과 호주의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정서 안정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요인들에서 낮게 평가
- 한국문화에서 겸양을 강조하고 미국과 호주문화에서 자기 긍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

한국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 ① 건강
- ② 가족의 화목
- ③ 행복
- ④ 가정의 안정
- ⑤ 신용
- ⑥ 사랑
- ⑦ 부모 존경
- ⑧ 신의
- ⑨ 가정의 안녕
- ⑩ 생명 존중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

- 1970, 1980, 1993, 2002년 조사
- 1970년대에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통제’가 중요했으나 점차 순위가 낮아지고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한 과제 해결(적극적 행동)’이 더욱 중요해짐
-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중요해짐
- 1970-1990년대까지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이 낮게 평가됐으나 최근에는 중요하게 평가됨
-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낮아짐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인생관 비교

- 1950, 1970, 1979년 조사
-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생관은 여러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의 추구
-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추구가 미국 대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인식
- 한국 대학생들은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을 억제하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를 하는 삶을 선호.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